

MVP 2015. AUTUMN(No.44)

벤처선교



하나님 나라의 난민

MY STORY

말레이시아의 아프간 난민 엄마들
카자흐 민족의 이슬람교 관련 의례와 절기들
베트남에서 온 기쁜 소식
고넬료 초청 '이란'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독립이 아니라 복음이다
VDS(2)훈련에서 만난 퍼스펙티브스
두 번째 캐빈캠프를 준비하며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욥13:25)



이사장 신동우

실행이사 신종렬 이종훈 이훈민 정우길 조명순 지경준 한정국 한천희 흥성원

협동이사 김동해 김만형 박삼열 이수진 이지호

본부장 장선우 | 행정 총무 이갈렙 | 훈련, 동원 총무 전상일

벤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구영삼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홍빈 | 캠퍼스선교사역개발원 부원장 김승관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김인애 | 연구원 윤정 | 협력연구원 강원국 김소윤 오요셉 이영배 전해솔 최현희

본부간사 권선주 김민숙 문현심 이현 전해솔

협력간사 김아영 손인종 윤여광 조대상

발행인 신동우 | 편집인 장선우 | 교정 김인애 최현희 | 편집 · 디자인 김민숙 윤여광

발행처 MVP선교회 | 발행일 2015년 10월 8일 | 발행부수 2000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67(망원동 378-11) 그린빌딩 5층

이메일 mvpok01@gmail.com | 홈페이지 www.mvp.or.kr

전화 02)703-1215 | 팩스 02)703-1216

Contents

- 여는글 04 하나님 나라의 난민 | 장선우
-
- 현장 05 MY STORY | 백수림(봄)
- 08 말레이시아의 아프간 난민 엄마들 | 최현희
- 11 카자흐 민족의 이슬람교 관련 의례와 절기들 | 김계원
- 14 베트남에서 온 기쁜 소식 | 김인애
-
- 단기선교 18 고넬료 초청 ‘이란’ | 전상일 이현
- 21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독립이 아니라 복음이다 | 조대상
-
- 훈련 23 VDS(2)훈련에서 만난 퍼스펙티브스 | 권선주
- 26 두 번째 캐빈캠프를 준비하며 | 전상일
-
- 새소식 28 MVP선교회 새소식입니다
- 30 선교사 소식 및 본부 후원자
- 31 선교사 후원계좌

하나님 나라의 난민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두 아이를 둔 아빠가 보기에 그 아이는 꼭 곤히 자고 있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팠습니다. 지난 9월 2일 터키 해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아이 '쿠르디'의 이야기입니다. 그 날 전 세계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쿠르디 비극을 있게 한 시리아 내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1년 4월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은 최근 IS(이슬람국가)가 참전하면서 더욱 확산되어, 시리아 인구(약 2,300만 명) 20%에 해당하는 430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일 수 천 명의 난민이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MVP선교사 중에도 T국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구호소를 방문하는 난민 수가 매일 평균적으로 600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매월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이들에게 나눠줄 담요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대기하는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 나눠주는 삶은 달걀 값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나눠줄 성경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난민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난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셨을 뿐 아니라, 멸망의 위기에 있는 니느웨를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던 요나를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본 한 장의 비극적인 사진은 마치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보냈던 박넝쿨과 비슷합니다. 쿠르디 사진을 보고 받았던 충격이 한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MVP

My Story

백수림(봄) / MK

봄

저는 서울에 사는 봄입니다. 제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이런저런 나라를 돌아다니며 여러 친구들도 사귀고, 여러 나라의 풍습을 배워왔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을 따라 다니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9일,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얼마 동안 테헤란에서 살다가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인 에스파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3살이 되던 해, 2006년 11월 1일에 제 동생 가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을이가 태어나서 얼마 후 저는 현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적응이 안 돼 너무 힘들었지만 적응이 되니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이란에서 7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경찰이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누군가 아빠를 신고 한 모양입니다. 아빠는 결국 이란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이 추방되었으니 자연스레 우리 가족 모두가 정든 이란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목적지가 정해질 때까지 한국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온 저는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해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라는 꿈을 안고 열심히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에 가보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꿈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MVP**

한국에서 저는 동생과 함께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8살이 되던 해인 2011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학교에 다닌 지 2개월쯤 되던 날, 아빠의 회사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라는 전보가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홍분되었습니다. 홍분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말레이시아로 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저는 영어를 하지 못해서 동생과 함께 영어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영어에 조금 익숙해지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교는 ‘겨자씨 학교’라고 하는데,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겨자씨 학교는 저에게 사랑, 존경, 인내, 온유, 자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앞으로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흐르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아뜨간 난민 엄마들

최현희 선교사 / I국

다음 주가 아이들 학교 방학인데 11살과 8살인 에너지가 왕성한 두 아들, 4살 새침데기 딸,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한 돌배기 막내아들과 하루 종일 좁은 집 안에만 있을 생각을 하니 엄마 파리마씨는 벌써부터 골치가 지끈 거리고 한숨이 나온다. 무엇보다 위에 두 아이가 학교를 가야 그나마 영양가 있는 간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집에는 난(Nan,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화덕에 구운 빵)말고는 아이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변변한 주전부리도 없는 것이 마음이 쓰인다. 막내도 점점 커가니 밥그릇이나 접시 말고 제대로 된 장난감이 아쉽다. 꼬마 아가씨는 점점 멋쟁이가 되어 가는데, 치마가 찢어지고 얼굴이 더러워진 바비인형을 만지작 거리는 것이 고작이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파리마씨의 한숨은 자세하게 설명 듣지 않아도 단숨에 이해된다. 이 가정을 가까이에서 돌보며 섬기는 애녹선생님의 설명으로는, 파리마씨의 남편은 막내가 태어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시내버스 안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이민국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때 이미 UN에 난민신청을 한 상태라 난민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잡아가서, 정식 난민증을 받은 지금까지 풀어주지 않고 있다. 아이들 아빠의 기억 속에는 막내 아들이 뒤집고, 기고, 걷는 모습이 없다. 그저 갓 태어난 꼬물거리는 신생아의 모습뿐. 이 가족이 말레이시아에 온지 1년 좀 넘었고, 파리마씨가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과 생활한지 11개월째이다.

봄이와 가을이는 햄버거를 아주 즐기지 않는 편인데도, 어린이 세트에 끼워주는 장난감을 갖고 싶은 마음에 호시탐탐 햄버거 집에 갈 궁리를 한다. 나는 조잡스러워 보이는 장난감이 탐탁지 않아서 같은 값의 좋은 장난감을 사려 가자고 해도 아이들의 눈길은 언제나 ‘끼워주는 장난감’ 전시 상자에 꽂힌다.



파리마씨에게 다음 주에 아이들과 외식을 하자고 했다. 보통은 인사차례로 거절의 뜻을 두세 번 내비치는 것이 아프간 사람들의 문화인데, 반기지도 꺼리지도 않는 덤덤한 목소리로 그려하고 한다. 약속 날, 멋지게 외출복으로 차려입은 파리마씨와 아이들과 약간은 서먹하게 햄버거 집으로 갔다. 파리마씨의 아이들도 봄이와 가을이처럼 장난감을 끼워주는 햄버거 세트를 좋아한다. 막내도 형들에게 밀리지 않고 자기 뭂을 씩씩하게 쟁긴다. 신나게 장난감을 조립하느라 정작 먹는 것은 뒷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감자튀김만 열심히 먹었다. 눈치를 보니 아프간에서 먹어보지 않은 서양식 햄버거가 입맛에 맞지 않나보다. 얼른 닭튀김을 시켰더니 튀김옷을 다 벗겨내고 속살만 먹는다. 서먹하게 올 때와는 달리 아이들이 서로 자기 장난감이 좋다고 자랑하느라 시끌벅적하다. 학교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니 대답도 잘해준다. 늘 차분한 눈길을 하고 있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 말고는 얘기도 잘 안하고 먼저 말을 건네는 법이 없는 파리마씨가 몇 번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그 고마움의 인사가 햄버거에 대한 것이 아닌, 같은 엄마로서의 동질감임을 안다.

페레쉬테의 엄마 쏘라여씨는 아래저래 걱정거리가 많다. 엄마를 닮아 페레쉬테도 사시가 있는데,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시력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출산 준비도 큰 일 중에 하나인데, 마음만 분주 할 뿐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골람

씨가 두 주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리는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일은 맘씨 좋은 이란인 주인이 손가락이 다 나을 때까지 일하러 나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구하지 않고 기다려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월 집세와 생활비, 출산 준비, 페레쉬테의 안과 검진 및 특수 안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저 쉬고만 있기도 답답한 노릇이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매일 새벽 6시에 식당에 나가 밤 11시까지 일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 쏘라여씨도 힘을 내고 있지만 한숨이 자꾸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봄이와 가을이는 모두 이란에서 태어났다. 내가 결혼 한지 2년 반, 이란에 간지 1년 반 만에 태어난 봄이는 멀리 한국과 미국에서도 선물이 날아올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처음 보는 한국 아이가 신기한 테헤란의 고급 사립병원 직원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사랑 또한 아낌없이 받았다. 모르긴 몰라도 내 입원실을 찾은 직원들이 간호사며 청소부를 막론하고 50명은 넘은 듯하다.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가을이는 그나마 병원직원 방문객 수가 20여명으로 줄었지만, 외국인이라 받는 대우가 좋은 것은 여전했다.

고향 아프간 집에 탈레반의 폭탄이 떨어지던 날, 십대 중반의 앱된 쏘라여씨는 가족 중 누가 살았고 죽었는지 확인 할 새도 없이 친척인 골람씨를 따라 이란으로 피난을 갔고, 그 곳에서 마음이 따뜻한 그와 결혼을 했다. 전쟁의 공포와 가족을 잃은 끔찍함을 이겨내고 단란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란정부병원에서 출산한 쌍둥이 중 한명을 사산한 쏘라여씨는 결코 면역력이 생길 수 없는 상실의 아픔을 다시 겪었다. 게다가 아이의 사인을 알려주지도 않고 죽은 아이의 얼굴이나마 보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하는 엄마에게 ‘계속 귀찮게 하면 이민법을 어기고 불법체류하고 있는 피난민인 너를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이란정부병원의 태도는 참담함과 무력감까지 더해주었다. 쏘라여씨는 그 때 자신의 품에 무사히 온 페레쉬테를 보면서 이 아이와 꼭 닮았을 그 아이가 절대 죽지 않았고, 누군가 아이가 없는 이란인 가

정에 입양되어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곧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날 아이가 무사히 자기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미누씨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가 있는 엄마라고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멋쟁이에다 말도 시원스럽게 하는 편이라 언제나 주변에 친구가 많다. 게다가 얼마 전에 이란에 있던 언니 가족도 말레이시아로 와서 더 옥 기분이 좋아졌다. 학교에서는 영어로만 수업을 해 온 내가 이란어를 할 줄 안다는 소문이 나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아프간 학생들이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와서는 수줍게 ‘당신이 정말로 이란어를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 내 입만 쳐다보다가 ‘나 이란어 할 수 있어’라는 대답을 들으면 와~ 하고 좋아하며 박수를 친다. 딸 마리암을 통해 내 소식을 들은 미누씨는 적극적인 성격답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이란 말은 어떻게 배웠는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음식은 입에 맞았는지, 덧세는 없었는지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진다. 미누씨도 여느 아프간 가정처럼 이란에서 난민으로 지내다가 말레이시아로 왔는데 마침 테헤란에서 왔다고 해서 더 반가웠다. 우리가 공유하는 테헤란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는다.

외국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명절처럼 온 가족이 모일 때 전화로 전하는 안부가 고작이니 참 마음이 어렵다. 특히나 어디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 달려가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에 직접 전화 드리기가 송구스러워 만만한 형제들에게 부모님 안부를 물어 병의 차도가 있으시다 전해 들으면 그제야 한시름 놓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다. 당신께서도 편찮으실수록 형제들에게 ‘나가 있는 아이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니 자식으로서 참 못할 노릇이다.

한참을 신나게 테헤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순간 미누씨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미누씨의 아버지는 테헤란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아버지와 언니와 셋이서 타고 가던 버스 안에서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는 고통스러워 하셨고 두 자매는 주위 사람들에게 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변 사람들 중 누구하나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들여서 테헤란을 회상하고 추억을 이야기 하는 말미에, 미누씨는 자신의 가족은 테헤란에 그다지 좋은 추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저 비참한 난민의 삶이 있었을 뿐. 그날 버스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이 난민이었기 때문이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 하는 미누씨를 뭐라고 위로할지 알 수 없었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미누씨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한다. 똑같은 난민 신분이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천대받기만 하는 난민이 아니라 UN이나 사회단체에 도움도 요청하고 배움의 기회도 얻어서 이란에서보다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며 언니를 초청했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 머문 동안 난민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아프간 가정과 교제 할 기회가 있었던 것은 나에게 참 좋은 경험이었다. 언젠가 한국의 신문에서 난민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취재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지역주민들은 자기의 귀한 자녀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난민아이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고 노는 것이 싫다고 했지만, 정작 그 난민 아이들은 본국에서 상류층인 고위관직자들이 정치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가정의 자제들이었다. 난민이라고 생각하면 으레 사회 하위계층을 떠올리지만, 정치적, 종교적, 내전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그들이 꼭 가난하거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아프간 난민 가정들은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나와 같이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미소 짓고 한숨 짓는 엄마이고 아내이고 딸이고 한 여자였다. MVP



카자흐 민족의 이슬람교 관련 의례와 절기들

김계원 선교사 / K국

이슬람교는 7세기 경 아라비아에서 발생하여 그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슬람교가 뿌리내리기 전까지 아라비아에는 수 백 개의 우상들이 존재했다. 무함멧은 이러한 우상들 모두를 없애고, 모든 아라비아를 하나의 신 알라에게 복종시켰다. 무함멧은 선지자로 알려졌고, 쿠란은 아랍어로 주어진 무슬람 공동체의 거룩한 책으로 간주되었다. 무함멧 사후 아랍인들은 칼리파를 형성하고, 아랍인들은 자기주변에 거주하는 국가들 즉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카자스탄의 남부 주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여 이슬람교를 정착시켰다.

이슬람교는 카자스탄 땅에 8세기에 들어와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슬람교는 카자흐 민족 사이에 지배력을 행사해 왔으며, 무슬만들의 거룩한 종교로 간주되고 있다. <무슬만>이라는 단어는 <알라에게 순복하고 그의 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모든 무슬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믿음의 길을 따라 살기, 하루 다섯 번의 기도, 금식준수, 자선(구제)베풀기, 성지순례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앞의 네 가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일반 무슬만들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의 성지 순례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성지순례는 카자흐 땅에서 대부분 가축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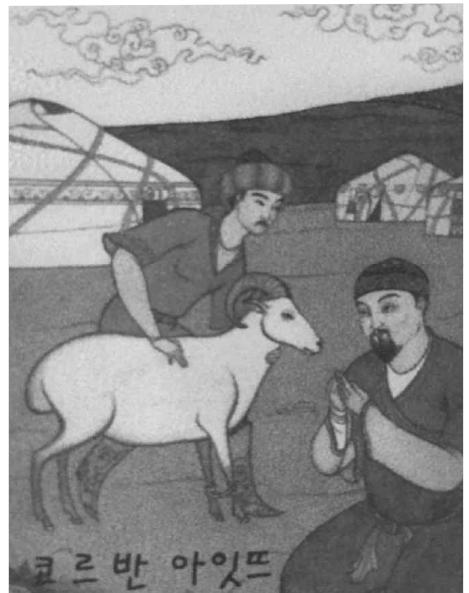
매년마다 전 세계 무슬만들은 아랍력으로 열두 번째 달에 이슬람 종교가 발생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카에 가서 거룩한 땅을 순례한다. 메카에는 성스러운 모스크가 있으며 그 한 가운데에 사각 건물이 있다. 그것을 아랍인들은 그 외형과 관련해서 카그바(입방체라는 뜻)라고 부른다. 카그바는 검은 견직물로 덮여 있고, 이 천은 이집트에서 짠 것이다. 카그바의 남서 방향에 알라 타갈라가 자신의 권능과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로부터 하사했다는 <검은 돌>이 있다. 카그바 옆에는 광천수가 흐른다. 메카에 간 사람들은 이 샘의 물을 통에 담아 그 안에 은을 넣고 고국으로 가져와서 마을의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한 수저씩 나눠주며 맛을 보게 한다.

메카에 성지순례를 가는 무슬만은 그 위에 흰 의복을 입고, 맨 먼저 카그바를 일곱 바퀴 돈다. 그 후 싸파 꼭대기로부터 매루아 꼭대기까지 길을 따라 뛴다. 이것을 <사기>라고 한다. 그 후에 메카까지 30킬로 정도 되는 곳 아라팟 산에 오른다. 그리고는 메카의 외곽에서 가축을 잡아 희생제물을 드린다. 잡은 제물의 피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익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들에게 돈을 주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전통을 준수한 무슬만은 <카, Kaju>라고 불린다. 순례를 한 사람들은 메디나에 있는 무함멧 선지자의 묘지에 가서 기도를 한다. 성지순례는 코르반 아잇뜨 축제와 더불어 끝난다.

1) 오라자 아잇뜨(Oraza ait):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무슬만 종교를 믿는 자들 모두는 30일간 금식을 지켜야 한다. 금식을 준수하는 것은 아랍력에 따라 라마잔이라는 달에 해가 뜨기 전 45시부터 입에 음식을 대지 않다가 해가 완전히 넘어간 후에야 음식을 입에 댄다. 이때에 담배를 피우고, 유흥이나 놀이를 하는 등의 일을 금지한다. 이때에 사람들은 알라 타갈라를 위해 쿠란의 구절과 종교법들을 읽으며 영적으로 정결하게 했다. 종교 교리에 따라 라마잔 달에 금식을 준수하지 않은 무슬만들은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여겼다. 이렇게 금식을 지키는 무슬만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위장이 튼튼해지고 건강도 좋아진다. 부자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배고픔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스스로 체험하면서 그들을 향한 자비와 동정심을 일깨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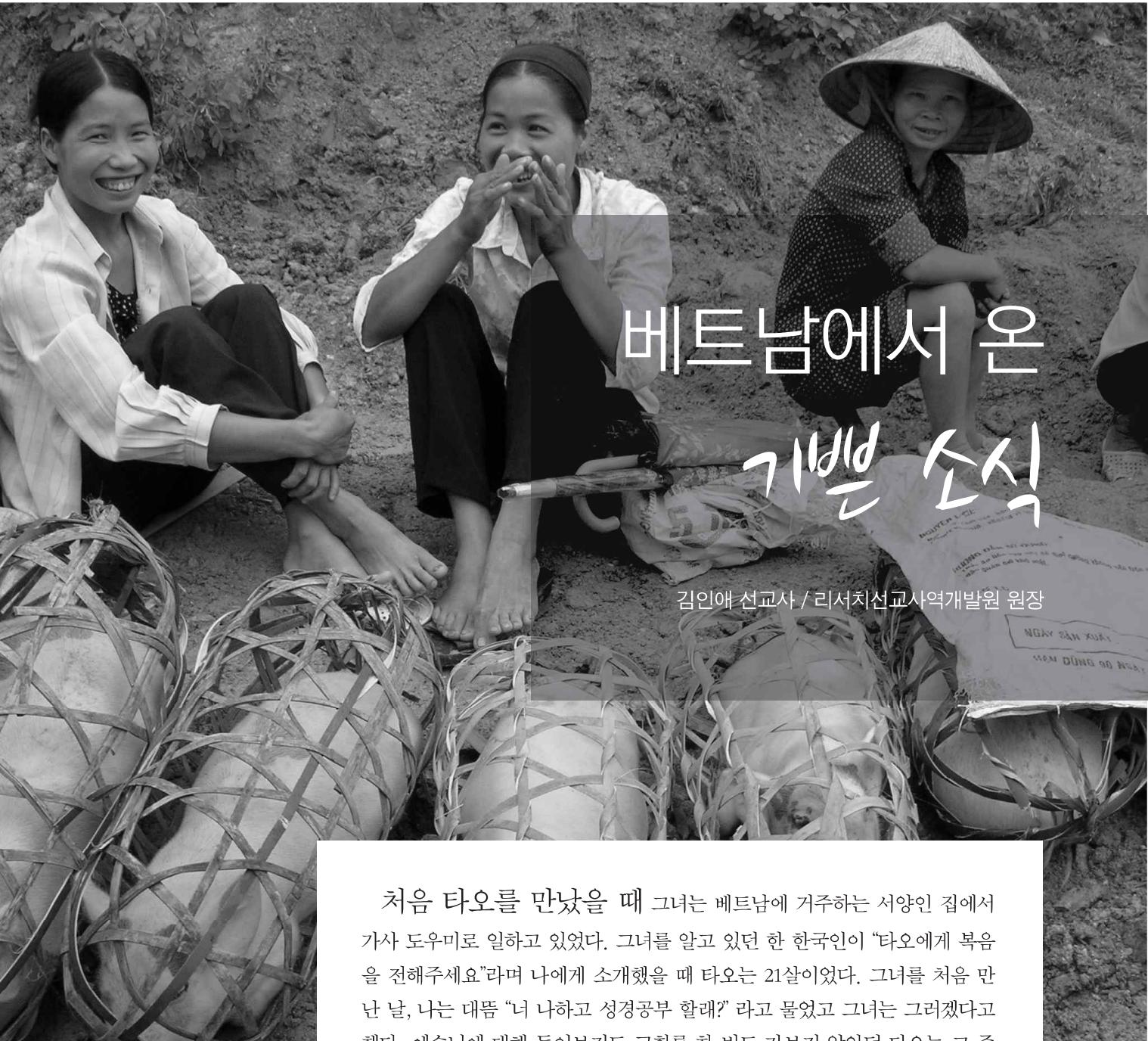
이슬람의 법에는 금식 때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금식월에 낮 동안 음식이나 물을 멀리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입에 양식을 댔을 때, 금식은 깨지게 된다. 10세까지의 어린이, 임산부 혹은 수유부, 건강이 안 좋은 노인, 금식 기간에 병에 걸린 사람, 장거리 여행 중인 여행객은 금식을 지키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아픈 사람과 여행객은 다른 달 중에서 그만큼의 날 동안 금식을 지켜야 한다. 금식을 지키는 때에 친척들 간에 금식을 지키는 이를 위해 금식을 지키지 않는 이가 금식시간이 끝나는 밤에 <아우즈아샤르, auzashar>에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곤 한다.

관습에 따르면 30일간의 금식이 있은 후 종교적 축제 오라자 아잇뜨가 사흘간 이어진다. 오라자 아잇뜨에 앞서 각 가정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풂다. 이 때 사람들은 자선을 받는 사람에게 건강을 기원하면서 돈을 낸다. 오라자 아잇뜨의 첫날에는 모스크나 아외 평평한 곳에 앉아 아잇뜨를 위한 경배를 드린다. 오라자 아잇뜨의 첫째 날에 조상들의 영을 추모하며, 코란을 읽고, 일곱 개의 쉘페을 만들어 <금요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슬만들에게 의무로 간주된다. 사흘간의 아잇뜨 축제에서는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옷을 갖춰 입고, 각 집에 들어가서 <아잇뜨가 열립되길!>하며 기원을 표하고 아잇뜨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맛보며 코란을 읽는다.



2) 코르반 아잇뜨(Korban ait): 코르반 아잇뜨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슬람교를 모든 아랍 세계에 전파한 사람은 무함멧이다. 그는 570년 메카에서 출생했다. 622년 무함멧은 메카에서 자신에게 반발해 일어난 무리들을 피해 도망해서 마디나에 이르렀다. 그곳에 유일신 하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자신의 주위에 모으고 630년 만 명의 군사와 함께 메카를 전쟁 없이 정복했다. 이렇게 그는 모든 아랍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다. 아랍인들은 무함멧을 <선지자>로 알고, 그가 한 말에 따라 기록된 하늘로부터 내려온 코란을 거룩한 책으로 받아들였다. 무슬만들은 무함멧 교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날을 기념하여 가축을 잡아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다. 만일 가축이 없을 경우, 닭을 잡더라도 피를 내면 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축제는 14세기를 이어져 왔다.

코르반 아잇뜨는 오라자 아잇뜨 이후 70일이 지난 후 있게 된다. 이날을 <코르반 아잇뜨>라고 부르는 것은 이 날에 각 가정의 가장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아잇뜨를 위해 식탁을 배설한다. 코르반 아잇뜨 역시 아침의 기도 시간(Namaz)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잇뜨 때에도 역시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고,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제물로 잡은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 코르반 아잇뜨가 있기 하루 전에 조상 영을 위해 가축을 잡고 코란을 읽고 제사를 지내는 전통도 있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의 현재적 의미는 알라에게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희생제물을 드릴 때 알라를 경배할 목적으로 가축을 잡아 피를 쏟게 했다. 그 후에 고기를 크게 나눠 배분하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 앞에 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갖게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드려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누게 되면 커다란 선행이 된다고 믿는다. 이 축제 때에 현재는 제물로 양, 염소, 낙타, 소 등의 가축들을 잡는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무슬만의 당연한 일로 간주된다. 제물을 드린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완수했고 알라에게 헌신한 것이 된다. 의무로부터 해방되고 심판 때에 커다란 공적을 얻게 되며 제물로 드린 가축들은 심판을 넘어가는 수단으로서 다리 역할을 한다고 여긴다. 코르반 아잇뜨 축제 때는 나이든 사람과 어린 사람들이 서로를 축하하며 <당신의 희생제물이 열납되길!>, <축제를 축하합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과 같은 기원들을 나눈다.



베트남에서 온 기쁜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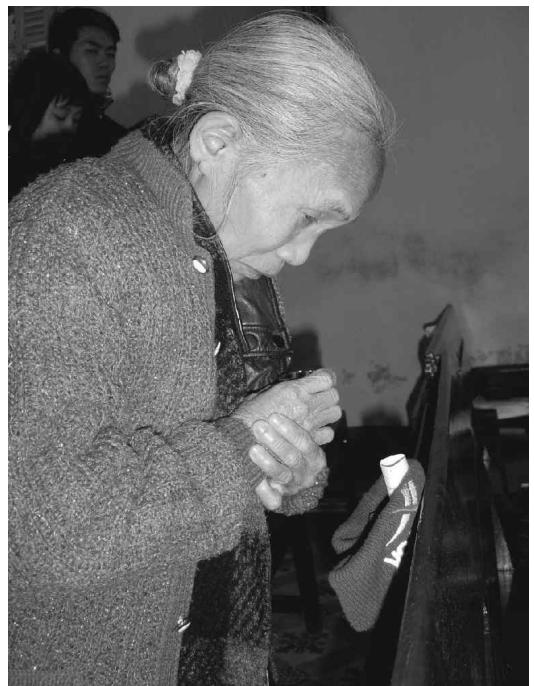
김인애 선교사 /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원장

처음 타오를 만났을 때 그녀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서양인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를 알고 있던 한 한국인이 “타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라며 나에게 소개했을 때 타오는 21살이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날, 나는 대뜸 “너 나하고 성경공부 할래?”라고 물었고 그녀는 그러겠다고 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타오는 그 주부터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갔고 성경공부도 시작했다. 성경공부를 한지 몇 주 후, 타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하고 있는 동생이 있는데 성경공부 시간에 함께 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지만 늘 밝고 쾌활하며 말과 행동이 빠른 언니 타오,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고 매사에 진지하고 침착한 동생 후웬, 10개월여를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보람을 느꼈다. 일주일에 한번 만나 성경공부를 했는데 그들은 주중에도 성경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했다. 그래서 묵상하는 법을 알려줬고 두 사람은 거의 매일밤 성경 본문 일정분량을 몇 번 반복해서 읽고 서로 깨달은 바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다. 주말에는 나와 함께 그 주간에 묵상한 본문과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묵상한 본문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 반복해서 읽은 결과일 것이다.

타오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은 못했지만 눈썰미가 있고 영리해서 새로운 것을 아주 빨리 배웠다. 사회성 좋고 적극적이어서 서양인들 집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영어 실력도 수준급이었다. 동생은 대학진학을 위해 재수하고 있었는데 타오는 미래에 대해 별 계획이 없었다. 그런 그녀에게 대학에 갈 것을 권유했다. 내 제안에 그녀는 웃었다. “전 지금 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후원과 저는 하루도 살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할 나이이기도 합니다. 아마 대학 간다고 하면 부모님의 반대가 심할 겁니다.” 가만 두면 변명거리를 늘어놓는데 하루도 부족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다. 3주정도 지난 후에 어렵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겠노라고 했다. “올해는 대학시험에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보는 기회로 삼고 다음해에 정식으로 시험을 보겠습니다”라고 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타오는 잠을 안자고 틈틈이 짬짬이 시간이 되는대로 공부를 했고 경험삼아 본 시험에서 합격했다. 2010년 2월 말, 내가 한국에 나올 때 타오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지금은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라고 했다.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타오는 국립하노이대학 영문학과 야간학부를 졸업하고 NGO에서 일하고 있다. 동생 후웬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 기업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주 하노이를 방문해서 전화했더니 바로 만나자고 했다. 올 3월에 결혼한 타오는 잘생기고 신실해 보이는 남편과 함께 새색시다운 수줍은 얼굴로 다가와 나를 꼭 안았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 받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막상 세례를 받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 특히 아버지 앞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가 때릴 거 같아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달라진 제 삶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저의 변화된 삶을 가족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담백하고 진지하게 나눈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만을 되도록 자세하게 밝▶도록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도 알다시피 일가친척 한명 없고 친구 한명 없는 하노이 생활이 시골뜨기인 제게 참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났던 2009년, 저는 그해 12월까지만 하노이에서 일하고 고향에 내려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물가는 비싸고 정이 없는 도시 생활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만난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9년 여름, 한국에서 온 의료팀을 따라 랑선성에 있는 고아원에 갔던 때였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돌보지 않는 베트남 고아들에게 한국인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 봉사활동을 온 것이 제겐 큰 도전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선생님이 한국에 간 후,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가정이 여름휴가를 맞아 인도에 갔습니다. 저도 그 기간에 휴가를 가졌습니다. 그 2주간 랑선성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해 여름에는 집이 없어 홍강에 보트를 띄워놓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홍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2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일어났던 일들과 제 인생을 바꾼 계기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증을 마치자 이미 한밤중이 되었는데 온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감동은 받았지만 입으로 영접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서 불심이 신실하기로 소문난 큰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렸고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일 후로 혼자서 식사를 하지도, 화장실에 가지도,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고 할머니는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으로 믿는 것 같지만 아직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곧 영접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마을 전체를 통틀어 그리스도인 한명 없고 교회라곤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고향마을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놀라웠습니다. 선생님하고 공부했던 빙 언니와 결혼한 남편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신학공부를 하는 중에 교회개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향에서 사역하기 위해 3년 전 우리 고향마을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서 개척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매주 고향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과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남아있는 가족 그리고 할머니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공부하고 있습니다. 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심에 젖어 거동을 거의 못하시던 할머니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빨리 걸어 다니시고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음력설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던 방식 대신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타오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 점심 먹던 중이었는데 나도 타오도 타오의 남편도 밥을 먹을 수 없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느낌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베트남어 실력으로 성경공부를 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만난 지 일 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한국에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녀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다. 영성한 베트남어 실력으로 3-4시간 성경공부하며 나누었던 시간은 참은 혜로웠지만 그들이 돌아가면 나는 기진맥진했다. 6성조를 가진 언어를 사용하여 성경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담되고 때론 머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시간이 되는대로 앉아 성경공부하며 씨를 뿐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으로 오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MVP

고넬료 초청 “이란”

글: 전상일 총무 / 훈련, 동원 그림: 이현 간사 / 훈련, 동원



변화하는 세상, 빠르게 움직이는 시간 속에서 굳게 잠겨있던 문이 열리고 있는 한 나라. 무채색 속에 화려한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있는 이란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미전도종족의 수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선교의 도전으로 남아있는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라고 기도하며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고넬료로부터 온 초청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
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
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
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들으려
하는지라(사도행전 10장19~22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란에서 고
넬료를 부르셔서 저에게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이란 서쪽 가장 오래된 도시 ‘하메단’에서 만난 친구
‘마흐무드’. 잘생긴 얼굴과 건강한 체격으로 동네에서 가
장 인기 있는 청년이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견지 못했
습니다. 친절하였고 남자다웠으며 특히 웃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가족들의 이야기.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찾아온 근육병으로 하체가 굳어지게 되었고
친구의 얼굴도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란에서 마흐
무드와 식사하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웃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흐무드를 통하여 이란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옛적 페르시아의 영광을 누리며 자신감과 웃음이 넘쳤고 자비로웠던 이란인들. 그러나 웃음을 잃은 사람들, 삶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아름다움을 가두어버린 두꺼운 종교적 관습 ‘이슬람’.

하나님은 복음이 이들에게 영광의 길을 다시 걷는 능력임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마흐무드에게는 근육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의 진료와 약이 필요하고 이란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무게와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란에서 고넬료 마흐무드가 저를 초청합니다. “와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와서 우리 동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마리아인 같은 선한이웃이 되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만난 이란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알려졌던 무슬림에 대한 그 동안의 오해를 풀게 하였습니다. 편견에서 빚어진 두려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 볼 수 없게 만들고, 선한 이웃으로서의 사명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고 하십니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더라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선교라는 사랑은 굳어져 걷지 못하고 있는 이란의 고넬료가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외치고 있는 초청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독립이 아니라 복음이다

조대상 간사 / 행정

쿠르드족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VTT(Venture Team Training) 훈련을 받으면서이다. 쿠르드인들은 민족 정체성이 강하고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민족이라는 현장 선교사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었다.

약 1년 동안 마음으로 품다가 지난 7월 캠퍼스사역개발원(캡사원) 글로컬교회개척학교(GPS, Glocal church Plant School)아웃리치를 통해 쿠르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터키 디야르바크르의 여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웠다. 쿠르드를 만나기 전에 방문한 이집트와 터키 앙카라에서의 육체노동(?)으로 지칠 법도 했지만 그냥 쉬고 있을 수 없었다.



터키에 도착했을 때 터키정부와 쿠르드인 간 분쟁이 일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했지만 우리는 바로 정탐을 시작했다. 더운 날씨와 뒤숭숭한 사회분위기 탓에 공원에서 조차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언어가 잘 되지 않아 불안하긴 했지만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사람들과 접촉해보기로 했다. 만난 사람들과 짧은 대화밖에 나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쿠르드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쿠르드인들은 친절했다. 공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친구는 팔아야 할 상품으로 손님인 나를 대접하기 바빴다. 물을 마시고 싶어 사먹으려 해도 돈을 받지 않았다. 그들에게 손님 접대와 나그네에게 용숭하게 베푸는 삶은 당연한 것이다.

얼마 전 터키 해안에서 ‘쿠르디’라는 시리아 난민 아이 시신이 발견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로 보도되었다. 나는 앙카라에서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들어온 쿠르드인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이 어떤지 들었기에 ‘난민’이라는 말에 더 관심을 가졌다. 내가 방문했던 그 가정은 정말 가난했다. 부모는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해야 했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아이들은 돈벌이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난민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자신들의 접대 문화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간다. 작은 베풂도 그들에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만 손님과 나그네에게 아낌없이 내어놓는다.

디야르바크르 공원과 앙카라 가정에서 대접을 받으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선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쿠르드인들은 독립을 원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쿠르디스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생겨날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해보이지만 독립된 쿠르디스탄이 어떤 나라가 될지 상상해봤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독립을 이루면 복음에 대해 또 이 복음 전달자들에게 열린 나라가 될까, 아니면 닫힌 나라가 될까? 나도 쿠르드가 독립하길 원한다. 하지만 독립에 앞서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전해지길 간절히 원한다. MVP

VDS(2)훈련에서 만난

퍼스펙티브스

퍼스펙티브스

관점
성경적
역사적

권선주 간사 / 재정
한철호 공동민자
정옥배, 변창우,
김동화, 이현모 옮김

퍼스펙티브스

2

관점
문화적
전략적

랄프 원터, 스티븐 호든
한철호 공동편저
정옥배, 변창우,
김동화, 이현모 옮김

#.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공포(?)의 시간

한 달에 한 번, 근무 시간이 끝나면 세 명의 본부 간사들은 한 손에 두꺼운 책을 들고 학생으로 변신합니다. '오늘도 잘 버티자!'는 각오의 표정을 하고 말이지요.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퍼스펙티브스〉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선교학자 랄프 원터 박사 주도하에 여러 다양한 선교 관련 글들을 모은 책으로, PSP(Perspectives Study Program) 훈련에서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선교에 관하여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으로 여러 저자들이 쓴 다양한 글들을 주제별로 담고 있어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퍼스펙티브스〉 책을 읽는 이 시간은 MVP선교회 산하 벤처선교사역개발원에서 진행하는 VDS(2) 훈련 과정입니다. MVP선교회는 본부에서 근무하는 간사들이 여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개발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기에, 주로 3사원(벤사원, 리사원, 캠사원)에서 개최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혼자서는 읽기 힘든 이 두껍고 방대한 양의 책을 함께 모여 읽는 시간이라고 하여, 호기롭게 첫 시간에 참석했지요. 그러나 실상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 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돌아가면서 발제하고 그 다음엔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첫 시간에 이 프로그램의 진실(?)을 알게 된 간사들은 '아! 도망가고 싶다', '안하고 싶다'는 마음을 격렬하게 느꼈지만 돌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지요.

#. 그 책엔 뭐가 담겼기에?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으로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선교는 ○○이다'라는 명제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의시다'는 첫 과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이며, 누구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지,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지,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운동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배우고, 타 문화권에서의 복음 전도와 지역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역할들, 교회배가운동과 제자도 등을 방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그동안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고, 깨닫게 된 내용들을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먼저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형태로 계시하셨는데,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케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 약속을 받고 축복의 대행자가 되어 계획을 보이는 자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권위, 통치권이 행사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이 오셨을 때 이미 임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의 말씀처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그 끝이 오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지요. 여기서의 모든 민족(족속)은 나라가 아닌 '종족 집단', 즉 인종적, 문화적 종족으로 문화와 언어 등으로 구분되는 각 그룹들을 의미합니다.

선교 사역은 미전도종족에게 자생적이고 토착적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해야 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복음 전도로 회심자가 생기고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할 때 토착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사들은 이 토착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돋는 역할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복음 전도뿐 아니라 삶과 실천의 영역들을 복음으로 풍요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중이 전해지지 않은 세계의 성교사에 복음이 전달하게 전해지기까지, 혹은 그들의 일상에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강보리고 남을 거친다. 최초의 이슬람권 선교사였던 레이먼드 룸(Raymond Lull, 1232-1315)은 이파우사한 생각을 중세의 표현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교포 사람이 너무 고풀어서 커다란 음식 조각을 티 한입에 넣듯이, 주님의 좋은 주님을 영화하고자 기꺼이 죽으려는 커다란 열망을 느낍니다. 주님의 좋은 주님을 위해 자기 피와 눈물을 위해서 밤낮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병
homesickness

령지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사람들을 기다린다. 우리 주 예수의 뜻 바친 손과 옆구리를 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기를 보내노라”(요 20:21)고 교사에게 매우 설득력 있

교회 내 유품에 세우노라 (필라이 본문 1:24, 12:4, 복 21:4 참고)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한 일의 영광이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는가! 가정의 따스함과 안락함 그리고 가족과 친척의 사랑을 떠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험난하게 헤쳐나온 부르짖음을 따라 걸어나온 알한 마음을 찾으려는 마음을 나면서부터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이 매우 영광스러운 과업이어서 가정의 유대 관계나 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위대한 목적이신 예수님의 비전과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막을 수 없다. 일어버린 자들은 예수님의 양 들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피운 아버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다시 헤쳐나와야 한다. 전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다.

포사이스(P. T. Forsyth)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개척자 정신
The Pioneer Spirit

이같이 하나님을 위해 앞서 뛰는 도끼와 검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진리의 불을 가지고 나갔으며, 후 따른 사람들의 길을 예비해 주

#. 공부도 계속되고 선교도 계속된다.

〈퍼스펙티브스〉를 읽으면 다양한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직접 발걸음을 옮기고, 언어를 배우고 친구가 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고, 모금을 하거나 조직을 세웠던, 닫힌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려 애썼던 수많은 위대한 선배들을 말이지요.

저를 포함한 MVP 간사들의 주요 업무들은 때로는 위대한 선교사역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메일을 회신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을 하고, 방문하는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사거나 청소를 하거나 짐을 싸고 푸는 일들은 아주 평범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과는 무관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현장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 필요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의 일상도 결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지요. 함께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며 마음을 써주시는 일들 또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퍼스펙티브스〉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에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선교'를 알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MVP

두 번째 케빈캠프를 준비하며

전상일 선교사 / 훈련, 동원 총무

청소년 선교동원을 위한 “케빈캠프”가
2016년 1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ACT29 비전빌리지에서 열립니다.

최근 7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청년들의 상황은 암담합니다.

7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꿈, 희망’을 포기한 청년세대를 말합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고, 절망과 낙담 속에 포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며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두 번째 캐빈캠프를 통해 “포. 복.절.도”라는 주제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청소년들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포 - 포기하지 말고
복 - 복음을 외치라!
절 - 절망하지 말고
도 - 도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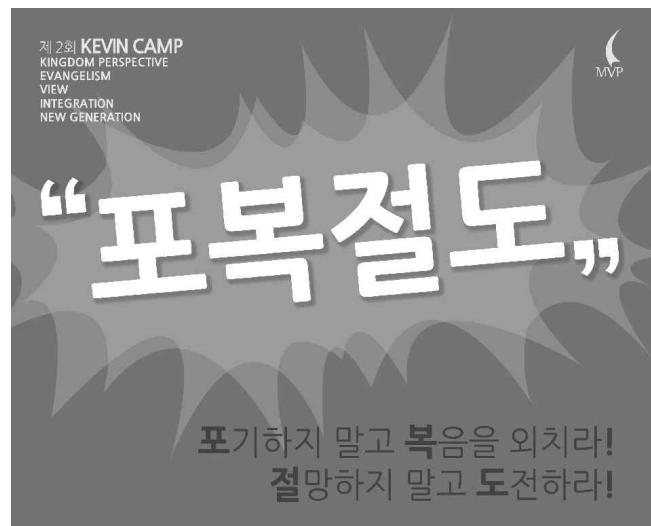
특별히 이번 캠프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지키는 삶과 요셉을 통해서 열방의 민족들이 기근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요셉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청소년의 시기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 뜻을 성취했던 것처럼,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외치는 이 시대의 요셉이 캐빈캠프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이 시대의 요셉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장벽들을 뛰어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될 때, 열방이 이들로 인하여 포복 절도할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캐빈캠프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단순히 청소년들의 자기만족을 위한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의 한 순간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초석이 되는 캠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제2회 캐빈캠프를 기대해주십시오! MVP



2회 캐빈캠프

일시 : 2016년 1월 11일(월)~13일(수) 2박3일간

장소 : ACT29 비전빌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239)

강사 : 신현욱 목사(저녁집회), 전상일 선교사(주제특강)

주제 : 포복절도(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외치라! 절망하지 말고 도전하라!)

대상 : 중, 고등학생

선착순 80명(더 섬세한 돌봄과 캠프 후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빨리 신청해주세요!)

회비 : 1인당 60,000원(인솔교사도 회비를 내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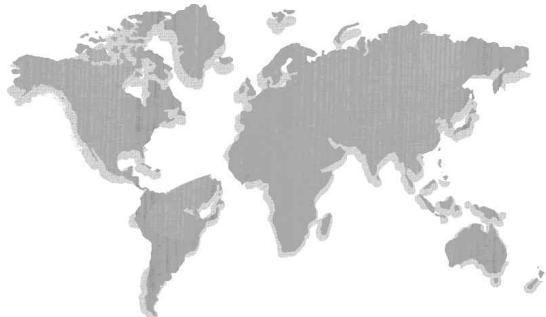
주최 : MVP선교회

주관 : MVP선교회 훈련동원팀

문의 : 캠프 안내 및 캠프를 위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MVP선교회 본부로 연락해주세요.
02) 703-1215 / 전상일 선교사, 전해슬 간사

MVP선교회

새소식입니다



1. 열방콘서트

MVP의 열방을 향한 뜨거운 예배 “열방콘서트”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열방콘서트가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선교동원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7월 30일에는 말씀(신동우 이사장)과 특별히 본부장 이취임 예배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8월 20일에는 말씀(김홍빈 선교사)과 캠사원에서 진행된 GPS(글로벌교회개척학교)팀의 아웃리치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7일에는 말씀(장선우 선교사)과 최웅수 선교사(카자흐스탄, 터키 디야르바크르), 고넬료 초청팀(이란) 선교보고가 있었습니다.



2. 신임 본부장 취임

2015년 8월 1일부터 장선우 선교사가 신임 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국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선우 선교사는 이란과 말레이시아에서 페르시아 민족을 대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전임 한수아 선교사는 OMSC(Overseas Ministry Study Center)에서 1년간 연구년을 보낸 후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3. 글로벌교회개척학교 개강

하반기에는 오픈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선교적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세미나가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4. 제2기 리서치선교사역개발원 심화훈련 과정

2015년 11월 6일~2016년 4월 1일(격주 금요일 오후 2시~6시) 제2기 리서치 심화훈련을 진행합니다. 안정식 교수 (ACTS), 전인수 교수(그리스도대학) 외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 발표, 토론, 훈련 후 선교지 리서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훈련을 준비하는 리사원과 강사,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5. SVM 31기 개강

2015년 하반기 SVM 훈련이 9월 12일에 개강하여 11월 21일 수료식을 가지게 됩니다. 매 강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훈련생들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M.K Dream Concert

6. MK 드립콘서트

2015년 10월 29일(목) 오후 7시 종로구에 있는 내수동교회에서 선교사자녀(MK)장학기금마련을 위한 드림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바랍니다(오후 6시부터 간단한 식사 제공).

7. 케빈 캠프 (KEVIN camp)

2016년 1월 11일(월) ~ 2016년 1월 13일(수)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캐빈캠프가 진행 됩니다. ‘포복절도’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의 비전이 세워지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8. 고넬료 초청

2015년 8월 3일~8월 14일 전상일, 이현(2명)이 이란으로 고넬료 초청을 받아 잘 다녀 왔습니다. 보고 느낀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9. 금식기도회

8월(13일), 9월(10일)에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금식기도는 10월(8일) 11월(12일), 12월(10일)입니다. 매주 첫째주 목요일에 하던 금식기도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매주 둘째주 목요일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금식기도는 외부로 나가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여하실 분들은 본부에 문의 바랍니다 (02-703-1215).

10. 중보기도 텁 모집

MVP선교회의 10개 권역의 선교지 및 선교사들을 위한 정기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월 첫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MVP본부에서 진행되며, 아울러 중보기도회를 이끌어갈 기도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본부에 문의바랍니다.



11. 2016 MVP선교회 탁상용 달력 제작

2016 MVP선교회 달력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가격은 3,500원 (발송비 별도)이며,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부에 문의바랍니다(02-703-1215).

12. 2015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

(2016년 1월부터 발급 가능)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수증은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발송 가능합니다. 반송이나 재요청이 많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일괄 발송은 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선교사 소식

선교사 출입국

07월 01일 이바실 선교사 이하준 출국
07월 08일 탁요셉 선교사 탁은지 출국
07월 09일 보배 선교사 출국
07월 10일 추근호 채길자 선교사 입국
07월 12일 장선우 정순달 선교사 가정 입국
07월 12일 박수보 선교사 입국
07월 17일 신미래 선교사 입국
07월 23일 한빛 누리 선교사 가정 입국
07월 25일 제이콥리 샤론박 선교사 출국
07월 27일 조다니엘 선교사 출국
07월 29일 박수보 선교사 출국
07월 30일 이갈렙 선교사 출국
08월 05일 신미래 선교사 출국
08월 05일 한수아 임하경 선교사 가정 출국
08월 06일 채열매 선교사 입국

08월 06일 이갈렙 선교사 입국
08월 06일 박동행 선교사 박정민 입국
08월 15일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 입국
08월 17일 이길 선교사 입국
08월 20일 채열매 선교사 출국
08월 23일 박동행 선교사 박정민 출국
08월 23일 샤론박 선교사 입국
08월 24일 이길 선교사 출국
08월 27일 한빛 누리 선교사 가정 출국
08월 30일 김수오 성복희 선교사 가정 출국
09월 01일 추근호 채길자 선교사 출국
09월 05일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 출국
09월 05일 샤론박 선교사 출국
09월 11일 김인애 선교사 출국
09월 18일 김인애 선교사 입국

2015년 6월 ~ 8월 본부 후원자

강길용(3) 강상모(3) 강상훈(3) 곽정인(3) 구명옥(3) 권수영(3) 김경동(3) 김성규(3) 김 솔(1) 김수오(3) 김승관(3) 김영복(3)
김영이(3) 김유리(3) 김정한(3) 김종근(3) 김진철(3) 김철우(3) 김학성(3) 김현곤(3) 김형복(1) 김혜란(3) 김홍빈(2) 노병인(3)
노 훈(1) 박건부(3) 박동행(1) 박미애(3) 박미영(2) 박병현(3) 박상윤(3) 박용신(3) 방민경(2) 방은미(1) 서연주(3) 서정희(3)
신동규(3) 신윤이(3) 신현경(3) 연인흡(3) 오샛별(1) 오설란(3) 오요셉(3) 오희순(1) 유병희(3) 유상범(3) 윤여광(1) 이경애(3)
이귀태(3) 이동욱(3) 이동욱_A(3) 이동욱_B(3) 이보람(3) 이상연(3) 이새암(3) 이승규(3) 이승원(3) 이여범(3) 이유경(2) 이유리(3)
이응복(3) 이재선(3) 이재준(3) 이종훈(3) 이주용(3) 이지혜(3) 이충식(3) 이판호(2) 이 현(3) 이현경(1) 이희정(3) 전해솔(3)
정다은(3) 정성희(3) 정소라(3) 정용환(3) 정유라(1) 정윤모(3) 정정주(3) 정현실(3) 조명순(3) 조영남(2) 조윤희(1) 조정주(3)
조희선(3) 지경준(3) 진 현(3) 최상규(2) 하명수(3) 한유경(2) 한은영(3) 한정국(3) 한천희(3) 허종현(3) 흥성원(3) 황두환(2)
황운이(3)

김민영/손인종(1) 김지혜/김지은(3) 이태훈/이태욱(3) 정성진/은연옥(3)

(주)에네스산전(3) 고현교회(3) 공종훈(하영통신)(3) 그소망교회(3) 꿈이있는교회(3) 남서울은혜교회(3)
불댄동산수림교회(3) 분당친구들교회(3) 산돌중앙교회(3) 성실교회(3) 엠피코퍼레이션(주)(3) 예수비전교회(3)
은진교회(2) 인천송월교회(3) 임마누엘(3) 조경순(ksttuar)(3) 질그릇터(1)

후원방법

1. 본부 계좌: 국민 012501-04-182812 MVP선교회

2. 전화신청: 070-8260-5518

이사 등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바뀔 경우, 저희 본부로 연락주시면 변경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후원 늘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번호 안내

(거래은행 : 국민은행)

MVP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후원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본부에서의 원활한 재정 관리를 위하여 선교사들의 후원계좌를 본부가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명단을 확인해보시고, 현재 재정 후원하시는 선교사들의 계좌번호와 다를 시 아래의 계좌로 변경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324790으로 시작되는 계좌번호는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아래의 번호로 자동이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농협, 우리, 외환, 기업, 신한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외 선교사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014	탁요셉 김사라	터키	324790-29-000225	전빌립 김루디아	타지키스탄
324790-29-000027	김순심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238	이바울 고예은	丫회사
324790-29-000030	김계원	카자흐스탄	324790-29-000241	이길 한마음	베트남
324790-29-000069	제이콥리 사론박	중국신장	324790-29-000254	누사배	미얀마
324790-29-000072	허드슨 노뵈브	이집트	324790-29-000267	박수보	중국신장
324790-29-000085	채열매	타지키스탄	324790-29-000270	신미래	UAE
324790-29-000098	한밀알 글로리아	터키	324790-29-000283	이만민 나기쁨	이란
324790-29-000100	이갈렙 박은혜	타지키스탄	324790-29-000296	박동행 김조이	타지키스탄
324790-29-000126	한수아 임하경	중국신장	324790-29-000308	김기용 정은미	이집트
324790-29-000142	하바나바 흥희락	요르단	324790-29-000395	이삭 열매	이집트
324790-29-000155	김수오 성복희	이스라엘	324790-29-000337	이복애	베트남
324790-29-000168	데이빗 드보라	베트남	324790-29-000340	엄미족 정부홍	중국신장
324790-29-000171	김게바 흥알마	중국신장	324790-29-000353	보배	이집트
324790-29-000184	신여호수아 윤사랑	터키	324790-29-000407	정해명	중국신장
324790-29-000478	민슬기 장사라	이집트	324790-29-000465	다니엘조	키르기즈스탄
324790-29-000209	장승리 유열매	카자흐스탄			
324790-29-000212	김소니아	파키스탄			

국내사역 선교사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139	한정국 이경애	KWMA / MCC	324790-29-000113	김인애	리사원 원장
324790-29-000043	장선우 정순달	본부장	324790-29-000410	김홍빈 김영미	캡사원 원장
324790-29-000197	신길벗 이루리	본부총무	324790-29-000436	전상일 차윤주	훈련동원 총무
324790-29-000324	아굴라 브리스길라	벤사원 원장			

국외센터 / NGO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324790-29-000366	이집트M센터	이집트	324790-29-000382	하베스트코리아	타지키스탄
324790-29-000379	모라비안센터	터키			

본부기금 및 산하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계좌번호	예금주명	지역
012501-04-182812	MVP선교회	본부	762301-04-235022	MVP선교회	청소년캠프
055201-04-130496	MVP선교회	10권역기금	762301-04-193960	MVP선교회	벤사원 기금
055201-04-130470	MVP선교회	MK기금	055201-04-130467	MVP선교회	리사원 기금
762301-04-169624	MVP선교회	건물기금	762301-04-193957	MVP선교회	캡사원 기금
762301-04-226167	MVP선교회	간사기금			

계좌이체가 번거로우실 경우, 홈페이지(www.mvp.or.kr)에서 미션플러스(CMS 후원) 신청도 가능하며, 본사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02-703-1215).

M V P 선 교 회
선교사 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www.mvp.or.kr

M.K Dream Concert



MVP선교회는 1999년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모험, 도전, 개척정신으로 사역하는 최전방개척선교회입니다.

‘MK드림콘서트’는

70여 명의 MVP MK(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MK드림콘서트 수익금 전액은

MK장학기금으로 사용되며,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MK장학기금 계좌

국민은행 055201-04-130470
(예금주 : MVP선교회)



CCM Artist **송정미**

퓨전트리오 앙상블 **도란**

아쟁 - 박영신

첼로 - 신나라

피아노 - 김은지

(추계예술대학교 졸업)

2015년 10월 29일(목) PM 7시 내수동교회 본당

내수동교회 |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10-8 / 02)737-6351



주최 | MVP MVP선교회 문의 | 02)703-1215

* 6시부터 간단한 식사가 준비됩니다.